무안국제공항 6월 초에나 운항 재개 될 듯

국내외 주요 항공사 비운항 계획 한달 더 연장따라
10월까지 적용 하계운항일정 제대로 이뤄질 지 불투명

코로나19 여파로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의 국내·국제선 운항 재개가 6월 이후로 또다시 미뤄졌다.

전남도와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은 22일 "국내외 주요 항공사들이 비운항 방침을 한 달여 더 연장하면서 6월 초부터나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공지된 운항스케줄에 따르면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사가 5월에도 비운항 계획을 통보하면서 운항 재개 일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제주항공과 중국 사천·동방항공 등은 애초 이달 말과 다음 달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려고 했으나, 이를 취소했다. 아시아나 항공도 제주행 국내선 운항을 다시 한번 6월로 미뤘다.

6월 운항 재개 계획은 1일 제주항공·3일 동방항공이 각각 국제선 운항을, 국내선은 아시아나항공이 제주행 노선을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10월까지 적용되는 무안공항 하계 운항 일정은 국제선 8개 노선(다낭·타이페이·세부·방콕·옌지·장자제·상하이·푸동) 48편, 국내선 1개 노선(제주) 14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이 같은 하계 일정도 실제 운항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무안국제공항은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지난 3월 2일 국제선을, 같은달 6일 국내선 운항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항공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항공사업법'과 관련 조례에 의거, 항공사에 총 3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무안국제공항을 기점으로 국내·국제선 정기노선을 개설·운항한 국내 항공사이며, 지원조건은 국제선 취항 항공기 규모가 140석 이상으로 주 2회(4편) 이상, 4개월(17주) 이상 운행돼야 한다.

국내선의 경우 주 4회(8편) 이상, 4개월(17주) 이상 운행해야 하며 정기노선 개설·운항시 3억원, 무안국제공항 정치장에 신규 구입·보유 항공기 등록시 5000만원이 지원된다. 국제 신규노선 1억원, 기존 정기노선 1000만원, 국내 정기노선 운항시에는 5000만원이 지급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5월에도 모든 항공사가 비운항 신청을 내면서 실질적인 운항 재개는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당분간 모든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집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국내 국제공항 중 이용객 증가율 1위를 기록하며 이용객 수 100만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었으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여행객 감소와 코로나19까지 겹쳐 전년 대비 2월 기준 이용객이 72.1% 급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방사광가속기 호남에 유치돼야"

호남권 9개 상의 회장단 성명

호남권 9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22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가 호남권에 유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권 상의 회장단은 "우리나라에는 포항 방사광가속기, 경주 양성자가속기, 기장 중입자가속기, 대전 중이온가속기를 가동 또는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나, 호남에는 대형 가속기가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광주의 AI와 미래자동차, 전북의 농생명과 탄소산업, 전남의 에너지와 바이오 등 호남권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의 획기적 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호남의 5600여 기업의 뜻을 모아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의 호남권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유치해 한전공대를 비롯한 호남권 대학과 한전을 중심으로 호남 지역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지 성명에는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 전북에서는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양희준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적우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장이, 전남에서는 이한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박용하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김종욱 순천상공회의소 회장, 이백구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동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부지 공모에는 전남(나주)를 비롯해 강원 춘천, 충북 오창, 경북 포항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김형호 기자 khh@

자동차산업 인프라시설 활용
광주시, 지역 부품기업 모집

광주시가 지역 부품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산업 인프라시설을 활용할 지역 부품기업을 모집한다.

참가기업은 23일부터 한국자동차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연내 수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본부에 구축된 '자동차 부품 시험평가 기반장비'(설계·해석, 평가장비 등)를 활용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2016년부터 시비 총 12억원을 투입해 차체부품 경량화 설계와 내구성 확보, 필터 효율 향상 등을 위한 기술과 평가 지원을 통해 부품기업이 기존 제품을 개선하거나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28개 기업이 180여 건의 기술 지원과제를 수행, 매출 963억원이 증가했다. 일자리도 103명이 신규 고용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18묘역 참배하는 보훈처장

박삼득(가운데) 국가보훈처장이 22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나눔·연대 상징 주먹밥 대중화 추진

광주시, 판매점 20개로 확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었던 주먹밥을 대중화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광주시와 광주 디자인진흥원은 22일 각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광주 주먹밥 브랜딩지원단을 구성, 1차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지원단은 주먹밥 레시피 표준화하고 신상품 개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브랜드, 캐릭터, 포장 디자인, 주먹밥 전문점 공간 구성 요령 등을 개발해 보급한다. 박람회나 온라인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먹밥 판매점도 20개로 늘리기로 했다.

광주시 등은 5·18 40주년을 맞아 리모델링을 마치고 복합문화 시설로 새롭게 개관하는 '전일빌딩 245' 4층에 다음달 내내 주먹밥 체험관도 운영한다.

시는 광주 7대 광주 대표 음식 가운데 하나로 주먹밥을 선정하고 전문가 레시피 11가지, 시민공모 레시피 20가지를 개발했다.

주먹밥은 광주 9개 업소에서 판매 중이며 최근에는 주먹밥 전문점이 문을 열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청소년도 후불교통카드 이용
광주시, 27일부터

광주시는 "오는 27일부터 만 12~18세 청소년도 전국 어디서든지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청소년은 대중교통 이용시 선불교통카드만 사용이 가능해 충전잔액이 부족할 경우 재충전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여신 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청소년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AI 집적단지 조기완공 국비 지원 해 달라"

이용섭 시장, 광주 방문 장석영 과기부 2차관에 건의

이용섭 광주시장이 22일 AI산업융합사업단을 방문해 AI 집적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핵심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은 첨단 3지구(4만6200㎡)에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4116억원을 투입해 AI융합이 촉진되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우수기업 및 연구소를 유치해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으로 기업 중심의 인공지능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등을 통해 광주형 인공지능(AI)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로 국비 626억원을 확보하고, 시비와 민자 등 약 1000억원을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에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에서 광주지역 현장소통을 위해 방문한 장석영 과기부 2차관과 만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조기완공을 위한 국비 지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또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기술, 광융합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사업 등 추진사업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과 광주가 앞선 나라, 앞선 도시를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4차 산업혁명이고, 그 핵심이 인공지능"이라며 "그간 산업불모지로 불렸던 광주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과 함께 AI강국 대한민국을 견인할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공식 출범

환경공단 등 3개 기관 이사 참여

노동이사제를 의무 도입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3곳의 노동 이사들이 협의체를 구성했다.

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는 22일 광주 도시철도공사 노조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초대 의장에 조일권 환경공단 이사, 부의장에 도시공사 박철균 이사, 사무국장에 박철환 도시철도공사 이사를 각각 선출하고 제도 안착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노동이사제는 2017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광주시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3개 의무 도입 기관이 차례로 노동이사 임명을 마쳤다.

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거수기 역할을 하던 이사회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실질적 이해 관계자로, 노동자를 대변해 경영의 투명성도 높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조일권 의장은 "노동자 경영참여의 기회인 노동이사제가 시행 초기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